

부활절 봉기와 조이스 - 「키클롭스」장을 중심으로*

민 태 운

1916년 4월 24일 부활절에 더블린의 중앙 우체국(General Post Office)의 계단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인 피어스(Patrick Pearse)는 독립선언서를 읽었다. 이렇게 시작된 부활절 봉기는 많은 희생자를 내었고 방법이나 효과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지만 아일랜드가 독립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에서 큰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아일랜드의 많은 문인들이 앞 다투어 형상화할 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예를 들면, 예이츠(W. B. Yeats)는 「1916년 부활절 봉기」(“Easter 1916”) 등의 시에서, 오케이시(Sean O’Casey)는 「쟁기와 별」(“The Plough and the Stars”)에서, 러셀(George Russell)은 「경례 - 1916년의 아일랜드 봉기에 대한 시」(“A Salutation: A Poem on the Irish Rebellion of 1916”)에서, 스티븐스(James Stephens)는 『더블린의 반란』(*Insurrection in Dublin, 1916*)에서, 그리고 도일(Roddy Doyle)은 소설 『헨리라 불리는 별』(*A Star Called Henry, 1999*)에서 각각 이 봉기를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스티븐스처럼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목격담을 쓴 사람이 있는가하면, 도일처럼 출생 전의 역사적 사건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A00659).

을 상상력을 통해 생생하게 현실로 재현해낸 작가도 있다. 부활절 봉기는 당시에 더블린에 살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일랜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부활절 봉기가 일어났을 때 조이스(James Joyce)는 현장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에서 『율리시스』(Ulysses)를 집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봉기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였고 위에서 나열한 문인들과 달리 이를 노골적으로 작품 속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을 두고 “쓸데없는”(useless, Ellmann 399), “어리석은”(absurd, Manganiello 163) 일로 단순하게 언급하고 지나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이스는 한번은 봉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들과 함께 “독립된 아일랜드”에 돌아가 성페트릭 기념일 혹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토끼풀을 달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였지만, 독립된 아일랜드를 방문할지의 여부를 묻자 “내가 독립된 아일랜드의 첫 번째 적(the first enemy)임을 선언할지도 모르겠다”는 일쫓달쫓한 응수를 하였다(Ellmann 399). 이는 그가 봉기와 관련하여 친구들에게 “아일랜드여 영원하라!”라고 아이로닉하게 말한 것(Duffy 15 재인용)과 마찬가지로 봉기에 대한 그의 숨겨진 불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시 분명하지는 않다. 신 페인 당의 격렬한 활동이 세계뉴스가 되던 때이며, 동시에 그가 「키클롭스」(“Cyclops”)의 집필을 마치던 때인 1919년 초에 친구인 버전(Frank Budgen)이 조이스의 정치적 입장을 묻자 조이스는 “아일랜드와 나에게 현재의 고정된 형체와 운명을 제공한 상황을 왜 내가 바꾸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볼래요?”라는 수사학적 질문을 되던짐으로써 역시 명쾌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Budgen 155). 이처럼 조이스는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불쑥 거친 논평을 하기 보다는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암시하는 편을 택한 듯이 보인다(Mcgee 198). 따라서 그의 몇몇 단편적인 언급들이 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봉기에 대한 그의 좀 더 복합적인 생각과 평가는 그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조이스는 비록 신체적으로 사건의 현장인 더블린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사건이 그와 개인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사건의 주동자인 피어스는 그의 아일랜드어 선생님이었다. 게다가 봉기에서 학창시절 친구인 쉬히-스케핑턴(Francis Sheehy-Skeffington)이 영국군의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고 같은 해 9월에는 1차대전에 영국군으로 참가한 친구 케틀(Kettle)이 죽었

다. 더구나 케틀은 조이스가 청소년기에 사랑의 감정을 품었던 메어리 쉬히(Mary Sheehy)와 결혼한 친구였다. 그래서 페어홀(James Fairhall)은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일련의 소식을 접하고 조이스가 무관심을 가장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163). 그렇다면 부활절 봉기에 대한 조이스의 반응과 평가는 작품, 특히 그가 그 당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며 집필하고 있던 『율리시스』에 숨겨져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많은 수수께끼를 숨겨 놓아 “교수들을 바쁘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던 조이스는 교수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보물찾기를 하도록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이제 역사나 정치에 대한 조이스의 무관심의 포즈가 꾸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텍스트가 조금씩 드러내주고 있다. 『율리시스』의 허구적 시간은 1904년이지만 텍스트에는 집필기간인 1914-21의 현실이 은연중에 이런저런 형태로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904년은 조이스에게 분리 가능한, 고정된 ‘과거’가 아니었다. 집필 당시의 ‘현재’가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스푸(Robert Spoo)는 『율리시스』가 “초역사적”(trans-historical, 119)인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폭력적인 에피소드로 알려져 있는 「키클롭스」장은 1918년에 주로 집필된 것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04년부터 집필년도 사이에 일어난 대표적인 폭력적 사건이 1916년의 부활절 봉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에피소드에 반영된 폭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계에서 이런 현상에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¹⁾ 작품 속의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과거와 집필당시의 시대인 현재가 뒤섞인 현상에 아마 최초로 주목한 연구서는 페어홀의 『제임스 조이스와 역사의 문제』(*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1993)일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율리시스』가 불가피하게 집필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164). 페어홀의 설득력

1) 물론 일찍이 맨가니엘로(Manganiello)가 ‘정치적인’ 조이스를 부각시킨 획기적인 연구서 『조이스의 정치학』(*Joyce's Politics*, 1980)에서 부활절 봉기에 대한 조이스의 반응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조이스의 전기적인 사실에 토대를 두고 실제로 조이스가 봉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조사하고, 조이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이라면 부활절 봉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인지를 추측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하여 놀란(Emer Nolan)은 맨가니엘로가 “조이스는 이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없다”라는 공식으로 조이스의 정치적 입장을 평가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한다(122).

있는 주장이 출발 신호탄이라도 된 듯, 조이스 학자들의 보물찾기는 시작되었다. 이 작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학자는 스푸로서 그는 “‘Nestor’ and the Nightmare: The Presence of the Great War in *Ulysses*”(1996)라는 논문에서 『율리시스』의 두 번째 장이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네스터」(“Nestor”)장을 분석하여, 이 에피소드에 “전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106). 보물찾기의 두 번째 대상은 「네스터」장과 쌍둥이라 할 수 있고 역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싸카」(“Ithaca”)장이다. 로코(John Rocco)는 “‘Time Travel on Wings of Excess’: ‘Ithaca’ and a Message in a Bottle”(2004)이라는 논문에서 역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외에도 놀란이 『제임스 조이스와 민족주의』(*James Joyce and Nationalism*, 1995)에서 「키르케」(“Circe”)장을 부활절 봉기와 연결시키는 등 조이스에 대한 부활절 봉기의 영향이 다양한 에피소드에서 감지되고 있다. 「키클롭스」장도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에서 언급되며 지나갈 정도로 이 연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아마 「키클롭스」장이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 장이 다루고 있는 민족주의, 문예부흥운동 등이 부활절 봉기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키클롭스」장에 부활절 봉기에 대한 조이스의 입장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러한 관점이 이 에피소드의 이해 및 해석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부활절 봉기는 문예부흥운동 및 게일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이스가 이 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조이스가 이 둘에 찬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놀란은 이 두 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켈트 문화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주로 영국계 아일랜드 문인들에 의한 문예부흥운동과, 게일 연맹(Gaelic League)과 게일체육회(Gaelic Athletic Association) 등의 조직에 속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소위 게일 민족주의로 나눈다. 다시 말하면 놀란은 개신교/영국계와 가톨릭/아일랜드계에 의한 운동으로 구분하고 조이스는 출생 및 성장 배경으로 보았을 때 후자에 속하므로 영국계 아일랜드 문화를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47-48). 또한 놀란은 조이스가 문학은 운동이나 정치 등을 초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츠의 문화민족주의와 문예부흥운동을 완전히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도(23), 조이스가 게일 문화주의

를 거부했다는, 지금까지 받아들여져 온 입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52). 필자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논란의 이러한 세밀한 구분은 중요한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이 둘에 대한 조이스의 입장이 동일하지 않다는 그의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두 운동이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²⁾ 둘은 또한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고, 특히 조이스는 둘을 자주 같은 범주 안에 넣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조이스는 무엇보다도 이들 운동가들이 과거 지향적이고 지방주의적인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이처럼 과거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 유효하다면 카이로의 노동자는 영국 관광객들의 집권 노릇을 하는 것을 경멸할 만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아일랜드는 죽었다. 만가는 불려졌고 묘비는 봉인되었다. 전설적인 예언자들, 방랑 음유시인들, 그리고 제임스2세와 시인들의 입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노래해 왔던 예전의 민족적 영혼은 제임스 클러런스 망간(James Clarence Mangan)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 시인과 함께 고대 켈트 시인들의 3중 질서의 오랜 전통도 끝이 났다. (CW 173-74)

위에서 “제임스 2세와 시인들”이란 가톨릭 신자인 영국왕 제임스2세의 왕위 복귀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자들로서 정치적인 게일문화 시인들을 가리킨다. 조이스는 이러한 가톨릭/게일 시인들과 켈트 시인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이들의 전통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사망선고를 내린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2) 에이츠의 문예부흥운동은 사실 나중에 창설된 게일 연맹의 게일어 부활운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두 운동은 1916년의 부활절 봉기에 영향을 미쳤다(Martin 5). 물론 모란(D. P. Moran)같은 이상주의자가 1901년 「두 문화의 전쟁」(“The Battle of Two Civilization”)에서 아일랜드는 “게일의 가톨릭 국가”라며 영국계 개신교인들을 배제하는 주장을 하였지만 그의 공격의 화살은 심지어 게일 연맹의 창시자인 하이드(Douglas Hyde)에게까지 향해 있었고 이것은 게일연맹 창단 시부터 존재해 왔던 온건파와 급진파 간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었다(Mays 69). 뿐만 아니라 켈트 문화와 게일 문화를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에켄대 영웅 쿠출린(Cuchulinn)을 켈트의 영웅(Gifford 320)이라고 하기도 하고 게일의 영웅(Mays 70)이라고 한다. 또 논란이 켈트문화 쪽이라고 말할 에이츠의 희곡 『캐슬런 니 홀리한』에 나오는 가련한 노파는 게일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기사들과 관련이 있다.

은 무모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조이스가 이러한 운동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인 「어떤 어머니」(“A Mother”)에서는 문예부흥운동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딸이 캐슬린(Kathleen)이라는 아일랜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려 한다. 공개롭게도 “캐슬린”이라는 이름은 예이츠의 희곡 『캐슬린 니 홀리한』(*Cathleen Ni Houlihan*)과 『캐슬린 공작부인』(*Countess Cathleen*)의 여주인공 이름이다. 그녀는 게일어를 공부하고 미사가 끝난 후 게일어로 인사하는 등 게일어 부활 운동의 신봉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문화민족주의자들이 주최하는 음악회에 초대되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아일랜드 승리 협회(Eire Abu Society)라는 게일어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도 예이츠의 켈트적인 요소와 게일문화 민족주의자들의 요소가 섞여 있고 조이스는 이 혼합체를 대상으로 풍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이스의 작품에서 이들 운동가들이 신화화하고 이상화한 순종 아일랜드인 농부가 그의 작품 속에서 “탈신화화”되기도 한다(민태운 89). 예를 들면, 「텔레마커스」(“Telemachus”) 장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우유 배달 노파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가련한 노파(Poor Old Woman)가 되는 대신에 우유 값을 약삭빠르게 계산할 줄 아는 초라한 노파로 전락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Stephen)의 친구 데이빈(Davin)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시골 아낙네, 즉 부흥운동가들이 이상화한 대상은 외로운 방으로 외간 남자를 유혹하는 천박한 여자로 그려져 있다. 결국, 조이스의 작품에서 나오는 농부는 게일문화 부흥운동이나 문예부흥운동의 이상(理想)보다 “단연코”(decidedly) 훨씬 못하게 그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Cairns 85). 이와 관련하여 「키클롭스」장의 무명의 서술자가 소변을 보러 가며 하는 말, “아일랜드여 잘 있어. 나는 고트(Gort)로 가련다”(12.1561)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원래의 표현, “더블린이 잘 있어. 나는 고트로 가련다”가 변형된 것으로 시골사람의 도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Gifford 366). 하우스(Marjori Howes)는 고트가 문화민족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인 그레고리 부인(Augusta Gregory)의 쿨 호수 근처, 다시 말해서 문화 민족주의자들이 이상화한 서부 아일랜드에 있다는 점과 “더블린”이 “아일랜드”로 바뀌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표현이 조이스가 그들에 의해서 이상화된 서부는 아일랜드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나타

낸다고 말한다(60).

부흥운동에 대한 조이스의 풍자는 「키클롭스」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피소드의 중심인물인 시민(the Citizen)은 아일랜드 스포츠의 부활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개일 체육회의 창시자인 마이클 쿠색(Michael Cusack)과 호머(Homer)의 서사시에서 외눈박이 키클롭스를 모델로 하여 그려진 인물이다(Gifford 316). 이 두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 하나의 제한된 관점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국수주의자 시민에게서 결합되어 나타난다. 물론 그 동안 많은 비평가들이 폭력적인 시민 대 합리적인 블룸으로 이분화 함으로써 시민은 독선적이고,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인물로 매도하고 블룸은 이 에피소드의 배경 장소인 술집에서 유일하게 이성적인 인물로 과대평가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놀란은 그 동안 시민이 「네스터」장의 합병주의자 데이지 교장(Mr Deasy)과 같은 유형의 인물, 무지하고 진지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의 역사적 지식의 정확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의 역사관이 조이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까지 주장한다(99). 물론 시민이 주장하듯이 1840년대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potato famine) 동안 영국이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서 인종적인 대학살로 보는 것(12.1364-75)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리고 영국제국주의 하에서 무너진 아일랜드의 산업과 감소된 인구에 대한 시민의 울분(12.1239-57)은, 놀란이 지적하다시피, 1907년에 조이스가 「아일랜드, 성인들과 현인들의 섬」(“Ireland, Island of Saints and Sages”)라는 에세이에 쓴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100).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조이스나 시민만이 주장하는 독특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이라면 누구나 토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조이스가 이 에피소드를 집필한 것은 에세이를 쓴 지 11년이 지난 뒤이고 이때는 1916년의 봉기를 경험한 후이기 때문에 조이스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이스가 영국의 압제에 반대한다는 것과 “아일랜드 지도자들을 목매단 영국 개들의 목을 따기 위해”(15.4528-30) 폭력적인 선동을 하는 시민에게 동조하는 것은 다르다. 다시 말해서, 조이스가 시민의 반영적인 입장에 동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폭력에 호소하는 그의 태도를 지지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조이스는 거의 항상 주위에 존재하는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해서 작품의 인물을 만들어 내었지 상상을 통해 허구적인 인물을 창조해내지는 않았다. 그렇

기 때문에 그의 인물들을 악, 폭력 등의 화신으로 그려진 커리커처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놀란이 비판하듯이 엘만처럼 이 장에서 블룸을 유일한 이성적인 사람으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96), 시민에 대한 그 간의 평가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잃은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³⁾ 그렇다고 시민을 조이스의 역사관을 대변한다거나 바람직한 탈식민적 인물에 근접한다고 보는 것도 그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모두 허풍”(12.1311-12)이고 그는 토지개혁 운동(land reform)이 있을 당시에 “쫓겨난 소작인의 땅을 차지해”(12.1315-16) 이익을 챙긴 비열한 짓을 한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민 옹호론자인 놀란은 심지어 시민이 블룸을 아일랜드 국민으로부터 배제시키는 태도(12.1419-32)를 두고도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내분된 민족의 민족주의적 화합(national unity)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52), 이는 시민을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하게 한다.⁴⁾

시민에 대한 묘사만 보더라도 조이스가 부흥운동에서 이상화시키고 있는 아일랜드의 영웅들의 모습을 그러모아 서사시의 문체로 우스꽝스럽게 제시함으로써 문화민족주의자들의 노력을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형 탐 발치의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인물은 넓은 어깨의, 폭넓은 가슴의, 강인한 사지의, 솔직한 눈의, 붉은 머리칼의, 주근깨가 만발한, 덩수룩한 수염의, 커다란 입의, 큼직한 코의, 기다란 머리의, 저음의, 살이 드러난 무릎의, 억센 손의, 혈색 좋은 얼굴의, 튼튼한 팔의 영웅이었다. (12.151-55)

이 영웅의 허리로부터 한 줄의 바닷돌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 돌들 위에는 고대의

-
- 3) 더피도 버전(Budgen)이 블룸을 사악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잘못 붙잡힌 점잖은 남자로 평가함으로써 이 에피소드가 집단에게 괴롭힘 당하는 개인의 비극적 이야기로 평가되도록 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한다(109). 더피는 시민과 블룸을 제국주의의 시선에서 각각 야만인과 문명인의 유형으로 그려져 있다고 본다(112). 그가 블룸을 문명인 영국인에 가깝게 보는 것은 놀란이 그를 제국주의 옹호자에 가까운 인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 4) 시민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The Dead”)에서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아이버스 양(Miss Ivers)도 간접적으로 조이스의 비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녀는 게이브리엘(Gabriel)이 보수적인 신문에 기고한다는 이유로 그를 친영파로 몰아 세우며 날카롭게 공격한다. 이에 게이브리엘은 “문학은 정치를 초월한다”(D 188)는 말로 응수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그의 입장은 조이스의 것과 일치한다.

많은 아일랜드 영웅들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영웅들의 목록에는 공자, 셰익스피어, 콜럼버스 등 터무니 없는 이름들이 들어 있어서 세계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아일랜드의 영웅이라고 우기는 형국이 된다. 또한 이처럼 수많은 돌을 한 줄에 매어 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당시 문예부흥운동이나 개일문화운동에서 무리하게 너무 많은 전설적 영웅들을 우상화하고 있음이 풍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의 개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개일어로 씌어진 고대 켈트 음유시인들의 시와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12.722-23) 부흥운동을 풍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이 고대 영웅들 중에 맨 먼저 등장하는 얼스터(Ulster) 지역의 쿠홀린(Cuchulainn 혹은 Cú Chulainn)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던 전설적인 영웅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부흥운동 시기에 ‘쿠홀린 숭배’ 열풍으로 되살아난 사람이다. 가장 오래된 개일 서사 이야기에 보면 그는 적들과 맞서 싸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되지만 자신을 돌기둥에 묶고 칼을 든 채 서서 적들을 만난다(Martin 1). 그리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 기둥에 자신을 묶은 채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남을 때까지 싸웠던 그는 1916년의 부활절 봉기 지도자들의 “피의 희생”(blood sacrifice)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McCartney 45). 따라서 1936년에 부활절 봉기로 인해 처형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념상을 중앙우체국 앞에 세울 때 손에 칼을 들고 돌기둥에 자신을 묶은 채 죽어가고 있는 쿠홀린 상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일랜드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우체국에서 싸웠던 봉기의 주역들을 나타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Martin 2). 쿠홀린 숭배는 “1798년의 반란이 일어난 이래로 울프 톤(Wolf Tone)-로버트 에멧(Robert Emmet)-젊은 아일랜드(Young Ireland)-피니언(Fenian)”으로 이어지는 물리적인 힘(force) 혹은 폭력에 의한 저항이라는 전통, 다시 말해서 아일랜드를 위하여 처형당하여 죽거나 중죄인 감방에서 고통을 겪는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McCartney 45). 그런데 「키클롭스」장의 시민이 쿠홀린의 상을 (목록의 첫 번째로) 지니고 다닌다는 점에서 그가 이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시민이 물리적 힘에 의한 저항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를 쿠홀린,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절 봉기의 지도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힘(force)에는 힘으로 맞서야지, 시민이 말한다. . . . 하지만 나라에 곡식이 넘쳐나서 영국 하이에나들이 리오데 자네이로에서 매매를 할 정도였는데 영국 정복자들은 이 땅의 민족을 굶겨 죽이려고 애를 썼단 말이지. 정말, 농부들을 때로 몰아냈단 말이야. 그들 중 이만명이 관이나 다름없는 배에서 죽었지. 그러나 자유의 땅에 도달한 사람들은 구속의 땅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복수심을 품고 돌아 올 거야. 비겁자들이 아닌, 그라뉴에일의 아들들로, 그리고 캐슬린 니 홀리한의 투사들로. (12.1364-75, 필자 밑줄)

여기서 시민이 감자 기근 사건을 두고 분개하며 물리적 힘으로 영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캐슬린 니 홀리한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그가 위에서 말한 전통과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문예부흥운동의 대표자인 예이츠의 작품 『캐슬린 니 홀리한』에서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가련한 노파 캐슬린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피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민이 캐슬린의 정신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예이츠의 이 희곡에서 캐슬린이 영국인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 즉 “우리 집의 낯선 사람들”(12.1150)을 사용한 후, 곧 이어서 이들을 “색슨족 강도들”(12.1157-58)이라는 좀 더 노골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활절 봉기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피어스가 아일랜드를 사슬에 묶여 있는 캐슬린 니 홀리한으로 보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rtin 14). 한 때 조이스의 개일어 스승이기도 했던 피어스는 그가 1908년에 세운 성 엔다(St Enda) 학교의 프레스코화 주위에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쿠홀린의 말, “내 명예와 행동이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하루 낮, 하루 밤만을 산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말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피어스 자신이 쿠홀린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고(Martin 1), 피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1913년에 “우리는 처음에 실수를 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유혈은 정화시키고 신성하게 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의 희생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Edwards 179 재인용). 그에게 민족주의 혹은 애국심은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한다는 인식, 항상 기꺼이 궁극적인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Mays 71 재인용).

사실 부활절 봉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개일 연맹의 회원들이었고(Garvin

78), 또한 봉기 때 영국에 대항하여 싸운 많은 사람들은 게일체육회 소속이었다. 영국당국이 무기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들의 공적인 모임은 헬리를 무기처럼 손에 든 젊은이들의 보호를 받았다(Martin 7-8). 봉기의 또 다른 지도자인 코널리(Connolly)는 사회주의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게일문화 부흥운동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그는 공동소유 등의 문화가 유지되었던 초기 게일 사회로의 복귀를 사회주의 혁명과 유사한 것으로 여겼다(McCartney 46). 게일 부흥운동의 공동소유 정신은 부활절 봉기 때 낭독되었던 선언문에 반영되어 있다(47). 이처럼 부흥운동은 1916년의 부활절 봉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특히 게일체육회의 창시자를 모델로 해서 그려진 시민은 더욱 그러하다.⁵⁾ 시민은 실제로 작품에서 “게일 스포츠를 창시한 사람”(12.880)으로 지칭되기까지 하며 그 입장에서 그들은 헬리같은 아일랜드 스포츠와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토론한다(12.889-91). 특히 “고대 범켈트족 조상들의 고대 게임과 스포츠 부활의 바람 직함”(12.906), 그리고 “고대 게일 스포츠의 소생”(12.909)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토론장이라기보다는 단합대회 같은 분위기인데 국외자 불룸만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뒤섞인 반응”(12.912)을 얻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마이클 쿠색이 피니언 단원이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Gifford 342), 시민도 공식적으로 이 물리적 힘에 의한 저항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이 피니언 당원이고 게일연맹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실제로 “신 페인! . . . 오로지 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우리 곁에 우리가 증오하는 적들은 우리 앞에 있다”(12.523-24)라고 외치는 부분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 페인! 오로지 신 페인!”은 게일연맹의 모토이자 애국적인 건배이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피니언단의 구호이기 때문이다(Gifford 333). 시민은 또한 게일어의 부활문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임으로써(12.679; 12.1182; 12.1189) 게일연맹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쿠홀린으로부터 시작된 물리적 힘에 의한 저항의 전통은 「키클롭스」에 피소드에서 끊어지지 않은 수맥처럼 연결되어 흐르고 있다. 시민은 기회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1798년의 봉기를 언급하며 잉그램(John Kells Ingram)의 시 “고인들에 대한 추모”(The Memory of the Dead)에 나오는 “누가 98년에 대

5) 페어홀은 시민과 피어스의 국가관이 거의 동일함을 지적하기도 한다(180).

해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Who fears to speak of Ninety-Eight)를 자랑스럽게 쏟아낸다(12.481). 당연히 이 봉기의 지도자였고 사형을 선고받은 후 죽은 올프 톤(12.499)과 1803년 봉기에서 처형당한 영웅 에멋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진다(12.499-50). 에멋의 교수형에 대한 묘사는 3 쪽 이상이나 되는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으로(12.525-678), “아일랜드의 모든 교수형 드라마의 합성물”(Kenner 93)이라 할 수 있다. 피어스 등 부활절 봉기의 지도자들은 에멋의 “정치적 후손”(Fairhall 178)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난 지 겨우 2년 뒤에 이 에피소드를 쓴 조이스는 아마 더 먼 과거인 1803년의 일 보다는 부활절 봉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케너도 이 두 봉기를 연결시키며 부활절 봉기에 대한 조이스의 입장은 에이즈의 아버지의 태도와 같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시인의 아버지는 만약 영국이 봉기의 주역들을 살려두었다면 아일랜드는 그들을 “미친 바보들”(mad fools)로 알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미소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93). 이어서 케너는 “한 미친 바보[시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어두운 술집은 봉기가 일어나기 12년 전의 아일랜드 애국심의 상태에 대한 제어”(93)라고 함으로써 시민과 부활절 봉기 주동자들, 나아가서는 에멋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인 교수형 집행인(hangman)이 더블린의 영국 당국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그 동안의 경력을 내세우면서 킬마인햄 감옥(Kilmainham jail)의 교수형을 자신이 맡을 수 있다고 한다(12.419-431). 그런데 이 감옥은 에멋이 수감되어 있다가 교수형을 당한 곳일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피어스등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주역들이 처형된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집필 당시보다 2년 전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영국인 교수형 집행인이 아일랜드인을 처형하겠다고 제의하는 편지를 읽은 시민은 그를 가리켜 “야만적인 잔인한 야만인”(a barbarous bloody barbarian, 12.432)이라며 분노하면서 제국이 식민지인에게 강요하는 “야만인”이라는 정체성을 상대편에게 되돌려 주는데, 이는 부활절 봉기 주역들의 처형 소식을 접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반응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은 그 동안 언어의 폭력을 보여 왔지만 실제로 ‘물리적 힘’의 방법을 쓰는 것은 이 에피소드의 끝 부분에서 그가 불륨을 향해 비스킷 통을 던질 때이다. 이 통은 지진을 일으키며 도시를 폐허로 만든다.

재판소 인근의 모든 훌륭한 주택들이 파괴되었고 재앙이 일어난 시각에 중요한 법률토론이 진행 중이었던 저 고귀한 건물 자체도 글자 그대로 폐허더미로 변하여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미 밑에 생매장당하지 않았는지 걱정될 지경이었다. (12.1865-69)

더피는 비스킷 통을 던진 후 생긴 지진의 묘사는 부활절 봉기 직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더블린의 모습을 강하게 암시한다며 그 당시의 더블린 사진까지 제시한다(123). 그 때 영국포함은 리피강으로부터 더블린 시내를 향해 포탄을 발사하여 시내를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더피는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더 제시하며 부활절 봉기와의 관련성에 신빙성을 더 해 주려고 애를 쓴다. 예를 들면, 마틴 커닝햄(Martin Cunningham)의 신의 축복에 대한 기도와 시민의 “아멘”에 이어 삽입된 종교의식에서 성인들이 행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의 행진 코스가 정확하게 부활절 봉기의 중심지였던 중앙우체국에서 「키클롭스」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니 커난 주점까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성인들은 “넬슨 기념비, 헨리 가, 메어리 가, 케펠 가, 리틀 브리튼 가”를 찬양하며 지나는데(12.1720-21), 그들이 중간에 거치는 이 지역들은 봉기 당시 영국의 폭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지역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시민이 무기로 사용하는 비스킷 통은 제이콥 앤 제이콥 회사(Messrs Jacob agus Jacob [12.1825])에서 나온 것인데 이 회사는 부활절 봉기 당시 봉기군이 점령한 거점 중의 하나였다(Duffy 123-24). 이러한 세밀한 자료들은 언뜻 사소한 듯 보일 수 있지만, 「키클롭스」에 반영된 부활절 봉기의 다소 추상적인 흔적에 구체성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키클롭스」장에서 조이스가 직접적으로 부활절 봉기를 언급하거나 평가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봉기가 일어난 후 2년 후에 쓰인 이 에피소드에는 이 거사를 암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를 유추해 볼만한 대목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먼저 문예부흥운동과 개일문화운동이 부활절 봉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조이스는 이 에피소드에서 이 운동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일단 봉기도 풍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물리적 힘’에 의한 저항, 더 좁혀자면, ‘피의 희생’의 전통 안에 있는 에멋과 봉기 지도자들을 오버랩시킨 것은 이러한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한다. 더욱이, 에머트가 주도한 봉기는 조이스가 1907년에 쓴 「피니안주의」라는 에세이에서 “어리석은”(foolish)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CW 189), 에머트가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부활절 봉기의 지도자 피어스에 의해서 “아일랜드인이 지금까지 한 말 중 가장 기억할만한 말”로 거의 신성시되었지만(Pearse 70), 「사이렌」(“Sirens”)장의 끝 부분에서 블룸의 방귀와 혼합되어 제시됨으로써 피어스의 시각이 패러디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Manganiello 145).⁶⁾ 또한 시민이 비스킷 통을 던진 후 파괴된 도시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활절 봉기 때 도시를 폐허화시킨 것은 영국의 포함이었는데 시민이 던진 통이 지진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은 다분히 많은 사상자를 내고 시내를 파괴한 무모한 ‘힘’에 대한 풍자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이스가 에머트과 젊은 아일랜드(Young Ireland) 등의 열정만 앞선 봉기의 성격을 “잠시 그들을 밝히다 전보다 더 진한 어두움을 남기는 켈트 기질의 섬광” 같은 것으로 평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CW 189).

(전남대)

6) 에머트의 마지막 말에 대한 조이스의 태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참고로 놀란(67-68)과 더피(88-89) 등은 조이스가 풍자한 대상이 에머트의 말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인용문헌

- 민태운. “조이스에게 있어서 민족/민족어와 영어.” 『제임스조이스저널』 9.1 (2003): 83-104.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and Other Writings*. 1972; rpt. Oxford: Oxford UP, 1989.
- Cairns, David and Shaun Richards. *Writing Ireland: Colonialism, Nationalism and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P, 1988.
- Duffy, Enda. *The Subaltern Ulyss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 Edwards, Ruth Dudley. *Patrick Pearse: The Triumph of Failure*. New York: Toplinger, 1978.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Rev. ed. New York: Oxford UP, 198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Garvin, Tom. *Nationalist Revolutionaries in Ireland: 1858-1928*.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Gifford, Don and Robert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2nd ed.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8.
- Howes, Marjorie. “Goodbye Ireland I’m going to Gort: geography, scale, and narrating the nation.” *Semicolonial Joyce*. Ed. Derek Attridge and Marjorie Howes. Cambridge: Cambridge UP, 2000. 58-77.
- Hutchinson, John. *The Dynamics of Cultural Nationalism: The Gaelic Revival and the Creation of the Irish State*. London: Allen & Unwin, 1987.
- Joyce, James.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olfhard Steppe, & Claus Melchio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_____. *Dubliners*. Ed. Robert Scholes and A. Walton Litz. New York: Viking Press, 1969.
- _____. *The Critical Writings*.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59.

- Kenner, Hugh. *Ulysses*. Rev. 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87.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Martin, F. X. "The Origin of the Irish Rising of 1916." *The Irish Struggle 1916-1926*. Ed. Desmond William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6. 1-18.
- Mays, Michael. *Nation States: The Cultures of Irish Nationalism*. Lanham: Lexington Books, 2007.
- McCartney, Donal. "Gaelic Ideological Origin of 1916." *1916: The Easter Rising*. Ed. O'Dudley Edwards and Fergus Pyle. London: Macgibbon & Kee, 1968. 41-9.
- McGee, Patrick. *Joyce Beyond Marx: History and Desire in Ulysses and Finnegans Wake*. Gainesville: UP of Florida, 2001.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1995.
- Pearse, Patrick. "Robert Emmet and the Ireland of Today." *Collected Works of P. H. Pearse: Political Writings & Speeches*. Dublin: Manusel & Roberts, 1922.
- Rocco, John. "Time Travel on Wings of Excess: 'Ithaca' and a Message in a Bottle." *Twenty-First Joyce*. Ed. Ellen Carol Jones and Morris Beja. Gainesville: UP of Florida, 2004. 112-34.
- Spoo, Robert. "'Nestor' and the Nightmare: The Presence of the Great War in *Ulysses*." *Joyce and the Subject of History*. Ed. Wollaeger, Mark A. Victor Luftig, and Robert Spoo. Ann Arbor: U of Michigan P, 1996. 105-24.

Abstract

Joyce's View of Easter Rising in the "Cyclops" Episode

Taeun Min

Joyce remained silent on the subject of Easter Rising, while he was composing *Ulysses*. Yet *Ulysses* does inevitably reflect the era and circumstances of its making.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yclops" episode echoes the Irish Rebellion of 1916. Joyce rejected the cultural nationalism and Gaelic revivalism in his essays and works. The "Cyclops" episode in particular parodies the Revivalism, and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the Revivalism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ising; for most of 1916 leaders had been members of the Gaelic League in their youth and many of those who fought against the British at that time were recruited from the Gaelic Athletic Association.

The citizen, modeled on the founder of the Gaelic Athletic Association, is probably a member of Gaelic League. Also, it is interesting to see that from his girdle hangs a row of seastones on which are graven the images of Irish heroes; the first of them is the image of Cuchulin. This is significant, for the result of Revival was the emergence of Cuchulin cult. The image of Cuchulin shedding his life's blood in the defence of his people did much to inspire the blood-sacrifice doctrine of the 1916 leaders. The Cuchulin cult mingled with and strengthened the Wolfe Tone—Robert Emmet—Young Ireland—Fenian physical force tradition. The leaders of the Easter Rising are the political descendants of these hero-martyrs and the citizen also belongs to this tradition, as we can see in his emphasis on "force against force" and the spirit of blood-sacrifice.

Further, Kilmainham jail where Emmet was hanged is exactly the same place where the leaders of 1916 Rebellion were executed. Finally, the description of the earthquake that accompanies the throwing of the biscuit-tin strongly suggests the

vision of Dublin after the Rising. It is true that Joyce did not articulate his view of the Rising, but Joyce's parody of Revivalism and his unfavourable view of Emmet and the citizen in the Cyclops episode suggest that he was not in sympathy with the methods adopted by the leaders of the Rebellion.

■ **Key words** : Easter Rising, Cyclops, Citizen, Revivalism, blood-sacrifice
(부활절 봉기, 키클롭스, 시민, 부흥운동, 피의 제물)

논문 접수: 2009년 11월 15일

논문 심사: 2009년 11월 20일

게재 확정: 2009년 12월 15일